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처럼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곳입니다. 이곳은 문화생활 공간이자 정을 나누는 사랑방으로서,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서울노인영화제로 시작된 본 영화제는 올해 3회째를 맞아 대한민국서울노인영화제로 면모를 일신하고 미디어를 통해 어르신들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미디어시대에 뒤쳐진 세대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미디어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서울노인영화제를 통해 ‘문화의 객체’가 아니라 그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는 창조하고 누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세대와 교감하며 세대 간의 이해를 넓히고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서울노인영화제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시각으로 그려진 세상은 젊은이들의 작품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노년을 상상으로 창작할 수밖에 없지만 어르신들은 살아온 경험으로 세상을 그려냅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물음을 갖고 이번에 나온 여러 영화를 감상해 본다면 재미도 더하고 삶의 가치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영화제가 감동이 있는 영화제로 발전하기를 발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4(2010)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